

소식지 원고 및 광고를 받습니다.

당협회는 소식지에 게재할 원고 및 광고를 받습니다.

원고는 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광고는 업체홍보할 내용으로 유료이며 광고요금은 전면 10만원, 반면 5만원, 줄박스 3만원등 입니다.

관련업체 및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본회는 오리업의 건전할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회의 가입은 오리업 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지며 본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월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회원이 됩니다. 본회 회원이되며 오리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받으실수 있고 본업종사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업계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원들의 회비납부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회납입구좌: 농협 123-01-089430 예금주 한국오리협회

협 회 소 식

회의 및 지회소식

본회 주관하에 98수원시 지방농민대학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29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98수원시 지방농민대학을 개최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본회의 주관하에 개최된 이날 교육은 강양순 작물시험장 연구관이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시중 유통미의 상품성과 미질 어떤가란 주제와 장규호 본회고문이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오리사육기술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 강연구관은 오리농법은 벼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유기미 생산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미질에 있어서도 일반미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안는데 반해 일반쌀보다 생산지나 상품별로 밥맛이 균일하여 안전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오리농법은 최근 환경농업의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장고문은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 오리를 사육하면 분변량이 감소하여 왕겨를 깔아주는 일이 줄어들거나 겨울철 온도관리를 위해 원치커텐이나

비닐등으로 보온하게되면 습도가 높아져 호흡기 질병의 주범이 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사의 형태가 축사내부로 햇볕이 들어가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법으로 축사천장을 햇볕이 통과하는 라이트를 깔고 그 위에 보온덮개를 깔아 개폐식으로 할 것을 제시했으며 이같은 축사서는 일반축사에 비해 왕겨가 1/7소요되면서 바닥상태가 양호해져 왕겨 및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본회 안희복회장은 그동안 오리사료화에 힘써준 공노로 농진청 황보 중 박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교육이 끝난후에는 오리농법 연구회 김서정회장의 대산농촌문화재단 특별상시상 자축을 겸함 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리고기 시식에는 본회 중부지회 송중하지회장의 후원으로 이루어 졌다.

광주전남도지회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12월 18일 제6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 위탁사육농가 사육수수료에 대한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날 조정된 육용오리 출하가격은 종전 조정된 4천5백원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끼오리 가격은 9백원에서 1백원을 인하 8백원으로, 위탁농가 사육수수료는 현행 9백원에서 1백원을 인하 8백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2월 들어서도 경기가 풀리지 않아 오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육용오리가격 및 새끼오리가격, 사육농가 위탁수수료를 인하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육용오리가격의 경우 지회가격을 더 내리는 경우 현실적인 가격은 더내려가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 의견이 모아져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반해 새끼오리 가격은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어 종전가격보다 1백원을 인하하여 사육농가의 입식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인하가 결정됐다.

또 사육농가의 위탁수수료는 현재 유통업체 및 계열주체들이 오리고기 소비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통분담차원에서 1백원을 더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8백원으로 재 조정됐다.

중부북부지회 월례회의 개최

본회 중부북부지회는 지난 12월 15일 정기월례회의를 열어 지회조직과 영농회 조직을 통합하여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지회장 총무등 지부임원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중부북부지회의 지회조직강화는 현재 같은지역내에 지회와 영농회로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영농회에서 추진해온 공동구매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회조직 또한 강화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한편 이날 참여회원들이 많지않아 통합에 따른 지회운영,사업계획등은 다음 1월 월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신제품안내

축협중앙회 오리사료 신제품 출시

축협중앙회 사료연구소는 최근 오리의 품종별 특성에 맞는 4개품목의 오리전용사료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양추가 공략에 나섰다.

자체사료연구소의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축협중앙회 오리사료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영양설계로 성장율을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전품목을 펠렛으로 가공하여 사료내 살모넬라균을 완전사멸시켜 사료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산란오리 사료의 경우 새끼오리 생산을 위한 산란오리 사료와 식란생산을 위한 산란용오리를 구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성은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한 특성이 있다.

생산품목은 어린오리,육성오리,큰오리,산란오리등 4개품목으로 급여프로그램은 어린오리사료는 입추부터 3주령까지, 육성오리는 육용오리의 경우 4주령부터 출하시까지, 산란을 위한 후보종오리는 4주령부터 10주령까지 급여토록하고 있다.

또 큰오리사료는 11주령부터 산란5% 2주전까지, 산란오리는 산란5% 2주전부터 도태시까지 급여토록하고 있다.

이번 축협의 오리사료 신제품 출시와 관련하여 축협사료연구소 여영수 박사는 오리특성에 맞는 최적의 영양소 요구량으로 오리사육농가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며 그동안 축협사료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양축농가의 인식을 가격은 적정하면서 생산성이 좋은 사료로 양축농가의 인식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중앙회가 운영중인 사료공장은 안산,청주,횡성,나주,김제,함안,안동,울산등 9개소에 달하고 있다.